

전남 교사가 주도하는 ‘2030 수업축제’ 연다

도교육청, 11월 29일까지 ‘수업대전환’ 현장 공개 릴레이 공개수업·토크콘서트·콘퍼런스·체험 다채

전남지역 학교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2030교실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수업 대전환, 2030교실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유·초·중등 2030수업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크게 ‘2030수업나눔’과 ‘2030수업한마당’으로 구분된다. ‘2030수업나눔’은 전남 전역의 2030교

실에서 펼쳐지는 릴레이형 공개수업 행사다. 세계시민, 디지털, 지역연계, 생태전환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 130개 수업이 공개되며, 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참관하며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교실 속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여수화양초의 ‘2030학생작가교실’에서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친구들과 나누며 작가로서의 성장을 경험한다. 특히 학생이 직접 글과 그림을 창작한 ‘바람과 함께 세계 여행’은 바람을

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를 찾아가 소개하는 내용으로, 세계를 탐구하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광양제철고의 일본어 미래교실 ‘한일 생태 토론 프로젝트’는 일본 사가북고등학교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운영된다. ‘2030수업한마당’은 수업 시연, 공연, 콘퍼런스,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우러지는 전남형 수업 축제의 장으로,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다채롭게 펼쳐진다.

유·초등은 11월2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중등은 11월29일 순천삼산중에서 열리며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수업

대전환의 여정을 공유한다.

지난해 2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데 이어, 올해는 교사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한층 풍성하게 꾸며진다.

유·초등 수업한마당은 여는 마당, 교실 마당, 교육과정·수업혁신 마당으로 구성된다. 여는 마당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연과 교육 뮤지컬이 열려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무대를 선보인다.

중등 수업한마당 ‘2030교실 나눔 마당’에서는 교과별 실시간 수업 시연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독서인문·예듀테크 체험 마당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수업,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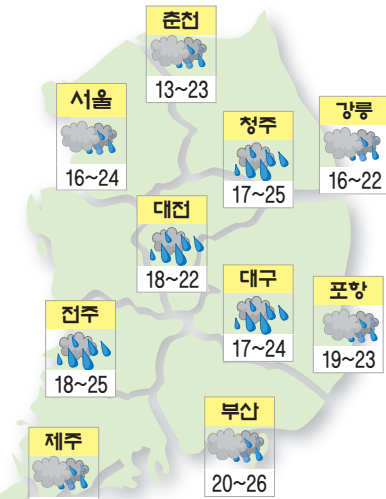
북 제작, 책 기반 토론 수업 등 미래형 수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로 참여한 여도중, 목포덕인고, 별교고는 질문 중심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발표하며, 변화하는 수업문화를 현장에서 생생히 보여준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축제를 통해 교실 속 수업의 변화를 실천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수업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전남교육이 K-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2030교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업 대전환의 길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38	달출	00:12
예보	17:58	달입	14:53



광주	19~24
목포	19~24
여수	19~23
순천	19~22
구례	17~24
광주	18~24
여수	19~25
순천	19~24
고흥	19~25
진도	19~25

목포	밀물 (고)	08:27 / 21:41
여수	밀물 (저)	02:09 / 13:59
	밀물 (고)	04:29 / 17:16
	밀물 (저)	10:11 / ---:---

월출산 산성대 구간 탐방로 내달 11일까지 예약제 운영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3일부터 11월11일까지 산성대 구간(산성대 입구~광암터삼거리)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번 탐방로 예약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http://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가능하며, 하루 정원은 230명이다. 예약 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접수가 이뤄진다.

운영시간은 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11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총 길이는 2.6km다.

한편 월출산국립공원은 13일부터 24일까지 탐방로 유지·보수를 위해 구름다리 종점~사자봉~경포대 능선 삼거리 구간(1.2km)을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서구, 한국지방자치대상 ‘종합대상 2관왕’

2023년·2025년 수상…지방자치 대표 도시로 ‘우뚛’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사진)가 대한민국 최고 행정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2관왕의 기록을 세웠다. 또 2023년 종합대상,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더해 ‘최다 수상’을 달성했다.

임기 내 전국 최초이자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운 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역사상 광주 서구가 유일하다.

서구는 평가 전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혁신행정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착한도시 서구’를 도시 브랜드로 선포하고 나눔·연대·참여 중심의 주민 체감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행정구역 전체 골목형 상점가 100% 지정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가족돌봄청년수당 지급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구형 스마트 통합돌봄체계 구축 △전국 최초 맨발산책길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은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1순위 사례로 손꼽히며 자생력 있는 골목경제 생태계 조



(0)’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공공·민간 협력 복지안전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기반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혁신과 변화의 값진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서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1996년 제정돼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의 행정성과를 정량·정성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최고의 지자체를 선정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사랑을 나눠요 1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단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박철호 동천동 적십자봉사단 봉사원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 교육발전특구 평가 ‘최고등급’ 달성

교육부 평가서 공교육 혁신·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고평가

광주시는 교육부 주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최대 1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

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평가는 해마다 각 지역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우수지역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 지역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 지

원 강화, ‘광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인공지능(AI)·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는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35개 기관이 참여한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등 광주를 ‘가장 모범적인 교육발전특구 운영도시’로 꼽았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통합돌봄, 인공지능·미래차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특허등록번호 10-473959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보물터

18.718K-낙산균2200mg, 낙도당화균200mg, 보물터100mg, 유산균10mg77911888 / 2g x 10 x 100mg

VITAMIN HOUS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